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베네딕토스 수사

사순절 제3주일 / 십자가 경배 주일

제7조 / 조과복음 7

(대영광송 후 십자가 경배 주일 의식 / 231, B 289)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B 288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삼성송 대신 '주여, 주의 십자가에' / 230, B 292
- 사도경: 히브리 4,14-5,6 / 230, 봉독서 451
- 복음경: 마르코 8,34-9,1 / 139, B 96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 62, A 171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B 288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베네딕토스 수사

우리 교회에서 3월 14일 축일로 지내고 있는 성 베네딕토스 수사(547년 안식)의 삶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성인이 로마에서 공부하였던 젊었을 때, 주변의 나쁜 것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광야로 가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인은 베네딕토스 수도회라는 큰 공동체의 설립자가 되고, 교회와 서신에 큰 업적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쁜 무리들은 “나쁜 친구를 사귀면 품행이 나빠

집니다.”(I고린토 15:33)라는 말씀처럼 사회적으로 큰 위험이 있는 젊은이들의 무리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진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번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 “복되여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시편 1:1)라고 시편에서도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질투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는 질투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인생에 있어서 질투는 모든 악의 첫째 조건이 된다. 질투는 죄의 첫째 원인이 되며 하늘과 땅을 더럽히는 첫째가는 독소이며 영원한 지옥 불의 불씨이다.

하늘에서 처음 죄지은 자는 사탄이다. 사탄은 하느님을 시기함으로써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낙원에서 처음 거역의 죄를 지은 자는 아담과 하와이다. 낙원에서 축출된 다음에 처음 범한 질투는 카인이 아우를 죽이게 하였다.

증오, 질투, 분노는 하느님과 무관한 것이다. 그것들은 기쁨과는 대치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이웃들과 격리시킨다. 질투는 결코 친구를 맺어주지 않는다. 적은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질투는 은근히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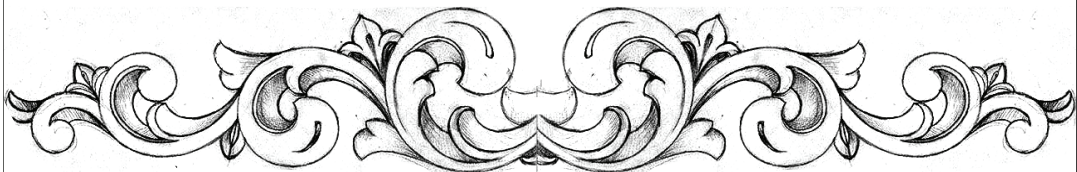
아우를 살해한 카인은 일생을 괴롭게 지냈으며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넘긴 그의 형들은 누우치고 용서받기까지 죄의식 속에서 지냈다.

만약 다른 이들이 질투하면 할수록 그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면 하느님의 상이 클 것이다. 이웃 형제의 행복을 보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질투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형제의 흠을 남몰래 고쳐주는 것은 질투가 아니며, 남 앞에서 고쳐주는 척하며 흠잡는 것은 질투이다.

질투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멀리 떼어 놓으며 이웃과 갈라놓는 무서운 악이다.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덕의 기본이 마련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종말을 맞을 준비

트리폰 수도원장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신자들이 파멸과 비운의 감정에 사로잡히곤 하는데, 이를테면 경제적 침체, 극단적 이슬람의 출현, 심각한 기후 변화 현상, 사회적 규범과 기준이 무너지는 것 등을 종말에 대한 예시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마지막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하느님의 사람들이 투쟁해온 것처럼, 우리도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부 하느님만이 그 날과 그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 이제 67세인 나는 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있다. 내 친구들은 하나 둘, 혹은 병으로 혹은 예고도 없이, 점점 더 많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엔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말씀드릴 준비를 해야만 한다. 회개할 시간이 따로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마지막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책임 있는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한다. 끝내 그리스도는 악을 이기실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지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고, 이로써 우리 또한 악에 대항하여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세계총대주교청 주교회의의 구성원 선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는 올해 2018년 세계총대주교청의 주교회의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달 한 번씩 주교회의에 참여하여 세계총대주교청의 주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영성 예술’ 출판 기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 집필하신 『영성 예술』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그 동안 정교회출판사에서 출간한 성화에 관련된 책들, 『이콘 신학』, 『이콘을 아십니까?』를 함께 소개하는 출판기념회를 3월 2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가질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주셔서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복사 모임

지난 3월 3일(토)에 서울 성당의 복사 모임

이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성당 소속 9명의 복사들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으로부터 영적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운동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복사직에 사명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장년회 봄 단합대회

서울 성당의 장년회는 지난 3월 4일 주일 성찬예배 후에 단합대회로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양도성 성곽길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협동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성당 정원 꽃 심기

오는 3월 25일 주일 성찬예배 후 성당 정원에 꽃 심기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 중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의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될 것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제4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14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3월 16일(금) 오후 6시 > 제4성모 기림 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